

월가에 '光' 바람...시장규모 현대전화와 맞먹어

미국에서 광케이블이나 광섬유 광통신장비 등 광(光) 바람이 일고 있다.

비즈니스위크가 최신호에서 「빛의 속도로」라는 주제의 광특집을 낸 것을 비롯해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신문들도 관련 기사를 잇달아 게재했다.

월가에선 코닝, 시에나 등 광 관련업체들의 주가가 연초 대비 100~300%씩 오르며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고 메릴린치는 광관련주를 집중 소개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관련사업 진출여부에 따라 기업의 순위까지 급격히 변화자 일부 기업들은 기존 사업을 강화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M&A나 제휴를 통한 확대까지 시도하고 있다.

광통신장비 전문업체인 캐나다 노텔네트웍스의 경우 올 매출이 전년 대비 50% 이상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가 급등, 시가총액이 200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북미 최대의 통신장비업체인 루슨 테크놀로지 시가총액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2/4분기 28.6%였던 세계시장 점유율을 올 2/4분기엔 43%로 높이며 독보적 위치를 굳혔다.

최근에 유리업체인 코닝이 이탈리아의 타이어업체인 피렐리사의 광통신 사업부 일부를 30억달러에 인수키로 했다. 코닝사는 이번 광통신사업부 인수를 계기로 기존 사업에서 철수하고 광전문업체로 탈바꿈할 방침이다. 코닝은 이미 광섬유 부품과 시스템 증폭기 광통신네트워크 등에 참여하며 준비를 해 왔다. 시에나사의 경우 재무안정성의 염려로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최근 한국통신에 장비를 공급기로 계약하는 등의 성과에 힘입어 연초 대비 4배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

대형 네트워크 벤더들, 광 네트워크 부문에 대규모 투자

시스코사와 노텔사, 루슨트 테크놀로지사와 같은 대형 네트워크 벤더들이 지난 1999년 1월 이후 매수한 광기술 관련 신종 기업수는 총 11개사에 달하며, 매수 총액은 적어도 23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 3사는 이외에도 인수할만한 가치가 있는 실리콘밸리와 뉴잉글랜드, 유럽 등의 광 관련 기술 업체를 찾고 있다고 한다. 인수된 업체 중에는 아직 제품의 베타테스트도 하지 않은 업체들도 있다고 한다. 이들 대형 네트워크 벤더들은 자사가 독자적으로 광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신종 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술 잠재력만을 보고도 광 기술 관련 업체들을 인수하는 것이라고 한다.

광통신 장비는 데이터 및 음성, 영상 등의 정보를 지역 네트워크 혹은 광역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전기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켜 주는 것으로 향후 엄청난 수요가 예상된다고 한다. 시스코사의 광 네트워크 부문 부사장인 Carl Russo 씨에 의하면, 현재의 광통신 장비의 시장 규모는 500억에서 800억 달러 정도라고 한다. 과거의 전례로 볼 때,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투자는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한 예로서, 1990년대 초에 IBM사는 ATM 기술에 약 1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해서



실패했다. 하지만, ATM 기술과는 달리, 광 네트워크 기술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수요를 유발하는 주체가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가 아니라, 실수요자들이기 때문이다.

시스코사는 최근 광 기술 부문에 총 104억 8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시스코사가 현재까지 매수한 광 기술 업체는 크게 3개의 사업부에 나뉜다고 한다. Optical Transport 사업부는 Pipelinks와 Cerent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하여 기업 등에 월 1000달러로 T3회선을 대여해 준다. 예로서, Cogent Communications사와 같은 대형 장거리 통신 회사를 고객으로 가지고 있다. 또한, Wavelength Routing 사업부에서는 Monterey Networks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 부문의 고객으로는 1050만 달러의 광 기기를 주문한 캐나다의 대규모 전화 회사가 있다. 마지막 Photonics 사업부에는 시스코사가 인수한 Qeyton사와 Pirellis사가 속해있으며, 이들 자회사를 통하여 고밀도 파장 분할 다중 통신(DWDM)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한편, 장거리 광통신 분야에서 확고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노텔사는 약 80억 달러를 투자하여 3개 회사를 인수했다. 이 중 Qtera사는 순수한 국제간 광전송 서비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Xros사는 장거리 광전송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광케이블 사업보다도 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다고 한다. 또한 CoreTek사는 올해 4/4 분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한다.

기술력 부문에서는 가장 뛰어나지만, 사업 측면에서는 뒤떨어져 있는 루슨트 테크놀로지사의 경우, 광통신 장비 개발 부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한다. 이 회사는 Chromatis사, Herman Technology사, Ignitus사를 인수했다. Chromatis사의 경우, 패킷 및 셀 기반 시간 분할 다중 통신 스위치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처럼 광 관련사업이 각광을 받는 것은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속도와 함께 문자는 물론이고 데이터 음성 동화상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보낼 대용량 통신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초기에 통신망을 구축한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통신망이 구리선으로 되어 있어 원활한 인터넷접속을 위해서라도 광케이블을 이용한 기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광산업이 현대전화와 맞먹을 정도의 엄청난 수요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